

〈석중옥기연록〉과의 비교를 통해 본 구활자본 〈형산백옥〉

서정민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한국고전소설 전공
sjmint99@snu.ac.kr

I. 머리말

II. 이본 비교를 통한 계열 선정

III. 〈형산백옥〉의 변모 양상과 그 의미

IV. 맺음말

I. 머리말

구활자본소설 〈형산백옥〉은 필사본 〈석중옥기연록〉의 이본이다. 선행연구에서 이주영은 〈형산백옥〉의 선행본으로서 필사본의 존재 가능성을 크게 의심한 바 있으나 이후로 필사본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이은숙은 1910년대에 나온 신작구소설로 이 작품의 특징을 논의한 바 있으며, 신효선 역시 1910년대 창작소설로 이 작품을 다루고 있다.¹⁾ 이에 이 글은 이 작품이 18세기 향유 작품으로 확인되는 〈석중옥기연록〉의 20세기 이본임을 확인하고자 한다.²⁾

필사본 〈석중옥기연록〉의 이본은 현재 2종을 확인할 수 있다. 사대동교수 소장본이었던 것으로 현재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것과 연세대 도서관 소장본이 그것이다(이하 한중연본과 연세대본으로 둘을 지칭한다). 둘 사이에는 회장 제목 유무의 차이나 서사 정합적 측면에서 부분적인 우열을 논할 정도의 차이가 확인된다.³⁾ 이러한 점은 〈형산백옥〉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⁴⁾ 그런데 현재 확인되는 필사본 〈석중옥기연록〉 2종과 구활자본 〈형산백옥〉을 비교해볼 때, 이들 사이의 일정한 거리와 이본끼리의 친소함이 파악된다. 이 글은 세 이본의 비교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본 간의 계열을 선정하고자 한다. 나아가 구활자본 〈형산백옥〉이 보여주는 변모 양상에서 확인되는 일정한 지향성을 확인할 수 있음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
- 1) 이주영, 『구활자본 고전소설 연구』(월인, 1998), 87쪽; 이은숙, 「활자본 신작구소설에서의 애정소설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1986), 29-33쪽; 신효선, 「형산백옥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6).
 - 2) 18세기 대하소설의 향유 관련 주요 자료로 거론되는 서울대 규장각 소장 〈옥원제합기연〉 권15 표지의 소설 목록 가운데서 ‘석중옥’을 볼 수 있다. 〈석중옥기연록〉 이본 가운데 연세대 소장본은 그 표제가 ‘석동옥’으로 되어 있는데, 동일한 작품이라 여겨진다.
 - 3) 2종의 〈석중옥기연록〉 필사본 사이의 구체적인 비교 논의는 서정민, 「〈석중옥기연록〉 연구」, 『인문학연구』 80(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10)에서 진행된 바 있다.
 - 4) 구활자본 〈형산백옥〉은 현재 3종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2종과 국회도서관 소장 1종이 그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모두 신구서림에서 발행한 것으로 그 가운데 한 종은 1918년에 나왔으며, 국회도서관 소장본은 세창서관에서 1952년에 발행한 것이라고 한다. 이들 3종은 내용과 표기에서 전혀 차이가 없다고 한다(이상 신효선, 앞의 논문(2006), 3쪽). 이하 이 글에서는 동국대 한국학연구소에서 편한 〈형산백옥〉(『활자본 고전소설전집』 10, 동국대 한국학연구소 편, 아세아문화사, 1977)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일〃히 니르니 공이 즈가 몽중의 말을 다 듯고 부인의 단처을 더욱 분명이 드러는지라 또 혼 즈세 니르던 니시 2만이 놀나 짓괴호고 참괴호여 목연부담호더라 (38-39쪽)

연세대본: (이씨가) 씌여 몽스를 왕공드려 던호디 즈가 칙호던 말은 괴이고 괴외는 즈시 던호니 공이 또 혼 몽중의 부인의 단처를 더 즈시 드렸는지라 또 즈시 이르니 니시 놀나고 참괴호여 말을 못호더라 (39쪽)

구활자본에서 이씨는 자신의 현몽을 남편 왕공에게 그대로 말하는 반면, 한중연본과 연세대본에서 이씨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던 대목은 빼고 남편에게 이야기한다. 그런데 남편이 같은 꿈을 꾸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서술된다.

이씨는 “스스로 고을와호여 스람을 압두호며 스스로 착홀와호야 가부를 가박야이 녀이매 조해 미워 싱산을 못호게 호”(한중연본 38쪽)였던 것인데 남편 왕공의 인후함과 적선 덕분에 딸이나마 자식을 얻게 된 것이다. 이후로 딸 왕초옥의 불구적 상황은 이씨의 개과를 주요한 조건으로 개선되고, 이씨가 온전히 부덕(婦德)을 회복한 후에는 ‘고목에 꽃이 핀 듯’ 아들까지 얻는 것으로 서사는 전개된다. 이러한 서사 전개를 염두에 둘 때, 왕초옥의 태몽이 서술되는 작품 초반 이씨 부인의 모습으로 한중연본이나 연세대본의 서술이 구활자본에 비해 좀 더 예각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왕초옥이 목소리를 되찾았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작중 현실적 맥락에서 왕초옥의 외모와 목소리는 단계적으로 회복된다. 혼인 전날 아름다운 외모를 되찾지만 목소리는 회복되지 않아 장계선은 온갖 약을 쓰며 방도를 강구한다. 그러던 중 장계선이 의탁한 바 있는 천태산 여진인이 보내온 영단을 일 년 동안 복용한 후 왕초옥은 목소리까지 되찾게 된다.

구활자본: 이 씨 왕부인이 영단을 먹은 지 삼백륙십 일이 츄미 일〃은 정당에서 즈반 후 시녀 난잉을 부르니 낭〃혼 성음이 귀를 놀닌는지라 학사와 균주 괴이호야 왕씨를 보니 다 왕부인이 잠간 미〃히 웃고 이후로는 성음이 분명하니 누가 그 십 년 병어리 되얏던 줄 올니오 (583쪽)

한중연본: 이 씨 왕부인의 영단 먹은 지 삼백륙십 일이 츄미 문득 낭〃혼 소리 옥반의 진취 구올며 금농의 잉무 말호는 듯호니 뉘 이십 년 병어린 둘 알이오 (107쪽)

거리를 보이는 대목은 구체적인 장면화 설정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그런데 필사본인 한중연본이나 연세대본에는 없는 장면이 구활자본에는 아주 상세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장계선이 우여곡절 끝에 3등으로 과거에 합격한 후 구활자본에서는 한중연본이나 연세대본에는 없는 삼일유가와 황제 알현 대목이 장황하게 서술되어 있는가 하면, 장계선의 증매로 왕초옥의 남동생이 혼인하는 대목 등에서도 두 필사본에는 없는 장면들이 구활자본에는 설정되어 있다. 혼례와 관련해서는 특히 장계선과 연춘난의 혼인과정에서 혼례일의 여러 구체적인 장면이 구활자본에만 서술되어 있기도 하다.

여기서 필사 이본이 아닌 구활자본에서 과거 합격 후나 혼례 같은 경사스러운 잔치 대목의 장면화가 확인된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족 모임이나 집안의 잔치 장면 등에 대한 서술은 그 부분을 생략해버려도 작품의 줄거리가 차이 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조선의 소설 가운데 특히 한글 대하소설은 이 같은 서술의 확장을 통해 특정 장면들을 구체화 하면서 작가적 관심을 부각시키는 특징적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결과적으로는 대하소설 장편화의 한 배경으로 파악되고 있다.⁶⁾ 따라서 구활자본 〈형산백옥〉의 이 같은 장면 서술은 그 자체의 특징이라고만 파악하고 말기에는 석연찮다.

게다가 필사본과 구활자본 이본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구활자본이 필사본의 축약 양상을 드러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점과 〈형산백옥〉 역시 축약의 흔적들이 확인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 같은 구활자본 〈형산백옥〉의 특징은 현전하는 필사 이본과는 또 다른 모본의 존재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이라 여겨지는데 이에 관한 상론은 아래 III장에서 진행한다.

6) 한글 대하소설에서 사건의 선조적 진행과는 무관한 이 같은 서술의 확대 양상에 관해서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주목해왔다[임치균, 『조선조 대장편소설 연구』(태학사, 1996), 207-209쪽; 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태학사, 1998), 83-123쪽; 송성욱, 『조선시대 대하소설의 서사문법과 창작의식』(태학사, 2003), 137-181쪽; 정길수, 『한국 고전장편 소설의 형성 과정』(돌베개, 2005), 241-249쪽; 서정민, 「〈명행정의록〉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2006), 60-115쪽 참조].

2. 한중연본 ↔ (연세대본, 구활자본)

전체적인 사건 진행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구절 표현에서의 양상을 먼저 살펴볼 수 있다. 작품 초두 장계선의 아버지 장침을 소개하는 대목에서 한중연본은 “한적 뉴후 당냥의 후손”(1쪽)으로 서술한 반면, 연세대본은 “한 유후 당냥의 스십칠디손”(1쪽)으로, 구활자본은 “한나라 류후 장량의 스십칠디손”(533쪽)으로 서술한다. 또한 왕초옥의 추모가 알려지면서 두 번이나 퇴혼 당하자 그 아버지 왕공은 한동안 사윗감 물색을 그만둔다. 이에 대해 한중연본은 “이후 반 년을 다시 구혼치 아니헛더니”(42쪽)로 표현한 반면, 연세대본은 “츄후 일 년을 다시 구혼치 아니터니”(43쪽), 구활자본은 “츄후 일 년을 다시 구혼치 아니하니”(551쪽)로 서술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장계선의 과거 답안을 본 상황이 장계선을 사위 삼고자 하여 그의 과거 답안지를 가져가는 대목에서 세 이본 간의 이러한 관계가 보다 확연히 드러난다. 장계선의 과거 답안은 누구보다 출중한 그의 재능을 보여주었지만 건문제를 폐위시키고 황위에 오른 황제의 의리를 문제 삼았던 탓에 황제의 진노를 사 5등으로 합격한 것마저 취소된다. 이에 상황은 장계선을 구제하고자 하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잠시 미룬다. 그러고는 우선 장계선을 자신의 사윗감으로 논의하고자 왕비에게 장계선의 과거 답안지를 보여주려고 한다. 이 대목에서 세 이본은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한중연본: 이날 전상의셔 당계선의 문장지지를 차석하여 구하고자 헛디 황제 진노하신지라 감히 개구치 못하고 시권을 주소서 청하디 데 같오사디 이런 비방하 글을 왕이 가져다 무엇하려 하노노 상황이 쥬하디 글시 조하니 신이 보고져 하노이다 하고 퇴조하여 (97쪽)

연세대본: 이날 전당의셔 당침의 문당직절을 크게 탄복하고 츄석하여 구코져 헛디 황야 진노하여겨시므로 감히 개구치 못하야 다만 시권을 취하야 스밈에 너코 퇴묘하야 (96쪽)

구활자본: 이날 언상에서 장계선의 문장직절을 크게 흠탄경복하며 그 낙방함을 츄석하야 간코즈하다가 턴로 바야흐로 진첩하시니 간언이 무익유희라 감히 개구치 아니코 글축을 스밈의 너코 퇴묘하야 (575쪽)

한중연본에는 상왕이 황제에게 장계선의 과거 답안지를 청하고 이에 황제와의 문답이 오가는 대목이 서술되어 있는 반면, 연세대본과 구활자본에는 상왕이 그저 시권을 들고 나온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여기서는 연세대본과 구활자본의 친연함을 확인하는 것에 더하여, 상왕이 황제의 아우로 설정되어 있기는 하나 일종의 공문서를 이런 식으로 가지고 나온 것으로 서술하고 마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연세대본과 구활자본이 친연한 반면 한중연본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대목들에서는 이처럼 그 표현이나 상황 설정의 적절함, 혹은 정합성 면에서 한중연본이 조금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상왕이 장계선의 과거 답안지를 가져 나오는 위의 대목 외에도 연춘난과의 혼인을 주저하는 장계선을 두고 벌어지는 인물 간의 대화에서도 이런 점이 포착된다.⁷⁾

한중연본: (주시량이) 늑당의 드러와 모친과 소저를 보고 당한님의 답언을 다 니른디 쇼제 답왈 당한님은 군지라 제 쇼정명스로 죄인의 즈식을 취흐미 안심치 아니게 녀이미 인신의 도리의 올흔지라 엇지 그르다 흐리잇고 (118쪽)

연세대본: (주시량이) 넙니 흐여 쇼저를 디흐여 당공의 말슴을 던흐디 쇼테 디왈 당혹스는 근신흔 군죄라 도정명스로 죄인의 즈식을 취흐미 불안치 아니리잇고 (121쪽)

구활자본: (주시량이) 늑당의 드러가서 모부인을 비웁고 소저를 디흐야 장공의 수말을 전흐니 쇼저왈 장혹스는 다신한 군즈라 도정에 스환흐며 구타여 죄인의 녀아를 취실흐야 도정시비를 듯고자 흐리잇고 자저불락흠이 사리의 당연흐지라 (590쪽)

장계선이 연춘난의 목숨을 구한 후, 주시량을 통해 그녀의 수절 소식을 전해 들은 장계선은 그녀와의 혼인을 권유받는다. 그러나 장계선은

7) 이 밖에도 상왕이 장계선을 찾아와 딸과의 혼인을 청하는 장면에서도 이런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장계선이 이미 혼인한 상황에서 군주를 들췌 부인으로 맞아들이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혼인을 거절하는데, 때마침 등장한 장계선의 장인 왕공이 상왕에게 방문한 이유를 묻는다. 이에 대해 한중연본에서는 상왕이 왕공을 만나 “극히 비편 흐여” 하면서 직접 말하지 못하는 것으로 서술한 반면, 연세대본과 구활자본에서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왕이 소왈……” 하여 자신이 청혼하고자 찾아왔음을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신분 고하를 떠나 상왕이 왕공 얼굴 보기를 겸연쩍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된다.

조정 신하로서 현 황제에게 충성하기를 거부하여 죄인으로 몰락한 집안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위 인용문 밑줄 부분은 이러한 장계선의 뜻을 전해 들은 연춘난의 발언이다.

세 부분 모두 장계선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연춘난의 말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중연본과 다른 두 이본의 표현은 간과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 즉, 장계선의 갈등이나 고민이 인신의 도리에 합당하다는 한중연본의 표현과, 죄인의 딸을 취하여 조정의 시비를 들을까 불안하거나 그러고 싶지 않음이 사리에 당연하다는 연세대본과 구활자본의 표현 사이에는 인간의 행위나 사고에 대한 이해 편쪽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중연본의 표현대로라면 장계선의 고심과 갈등은 신하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 반면, 다른 두 이본의 표현은 ‘할 수도 있는, 할 만한’ 고민이라는 것으로 읽히는 것이다. 장계선의 이런 고심은 황제의 사훈령이라는 외부적 상황의 변화로 더 이상 진전될 필요도 없이 쉽게 해소되어버린다. 하지만 장계선의 처신을 둘러싼 이본 간의 이 같은 인식의 편차는 동일한 작품에서조차 그 수용 층위가 상이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한편 임오정난과 관련한 연춘난 집안의 몰락에 대한 서술에서 한중연본의 경우는 “원컨 이 스람은 다른 스람이 아니라 년즈평의 종형 연즈청의 일녀 춘난이니 그 부친이 정난병이 드리오믹……”(91쪽 2줄-92쪽 1줄)라고 하여 한 면에 걸쳐 연춘난 집안이 임오정난에 휘말린 결과 부친과 오빠들이 죽고 집안이 몰락한 사연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연세대본에서는 “이 쇼저는 도어스 년즈텅의 쇼네니 정난시의 스결호고 제지 다 면치 못흐니 부인이 즈결홀 식 녀으를 남장호여 후원으로 탈신케 호고 아모리나 도싱호여 설우를 참고 부모 의스를 니으라 빅 번 부탁호니 쇼제 텅지 망극등 츠마 저버리디 못호여 쥬철의 모친 설시는 년부인 형이라 절강의 가 의탁호라 호다가 이리 되엿더라”(89쪽) 정도로 서술이 간략할 뿐만 아니라, 임오정난과 관계된 그 일가의 몰락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보다는 연춘난과 주철이 사촌지간이라 그 집에 의탁하게 되는 데 필요한 정보 정도만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점은 아래와 같이 구활자본에서도 다르지 않다.

구활자본: 츠인은 도어스 년즈형에 쏘이니 당싱에 글시 펴논호던 쇼저라

년공이 정난 후 절사하고 일문이 흑화를 당하니 부인이 즈결홀 썩에 녀아를 남복을 식히어 후일 원혼을 설치하고 아모리 어려운 줄이느 탈신도쥬야야 설어음을 참고 부모에 후를 니오라 천칙 번 부탁하고 인야 죽으니 소제 텃디망” 하니 참아 유교를 저버리지 못야 의지할 곳을 어(엇 오기)지 못더니 쥬싱에 모친 설씨는 연어사 부인의 형이라 절강에 가 의탁고즈 후다가 길에서 정난 가권을 모다 슈식야 죽어올니는지라 쇼져 육이 급하면 찰호리 죽느니만 갖지 못하야 오강에 익슈호얏더니 당싱에 구호미 되얏더라 (571-572쪽)

연세대본과 구활자본 사이에도 표현의 일정한 차이를 지적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한중연본이 다른 두 이본에 비해 역사적 사건을 훨씬 자세히 표현하고 역사적 인물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높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즉, 한중연본은 작중 서사 전개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연세대본이나 구활자본은 작중 서사 전개에 필요한 정도로만 서술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 이본의 관계를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다.

3. 연세대본 ↔ (한중연본 ↔ 구활자본)

이 경우는 앞의 두 경우에 비해 그리 주목할 만한 양상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장계선의 부친을 소개하는 작품 모두에서 연세대본에서만 ‘증보’라는 자(字)가 밝혀져 있고, 회장 제목이 없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한중연본과 구활자본이 회장 제목이나 회장이 나뉘는 대목에서 동일하거나 같은 계열이라고 할 만한 친연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한중연본의 경우 총 4회의 회장 제목이 설정되어 있는데 비해 구활자본에서는 총 12회의 회장 제목이 설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분장 대목도 상이하다.

4. 한중연본 ↔ 연세대본 ↔ 구활자본

이 경우는 먼저 사소한 자구 표현에서의 차이를 지적할 수 있다. 장계선이 주점에서 요기를 하는 대목에서 ‘만두 혼 그릇’(한중연본 19쪽), ‘만두 반 사발’(연세대본 20쪽), ‘만두 반 그릇’(구활자본 541쪽)으로 표현한 것이나, 장계선의 글을 산 연자청이 이로써 딸 연춘난이 글씨체를 익히게

하는 과정에서 '너의 필첩'(한중연본 62쪽), '너의 법첩'(연세대본 62쪽), '너아의 체본'(구활자본 559쪽)으로 표현한 것, 과거 시험장을 두고 '과옥'(한중연본 93쪽), '당옥'(연세대본 92쪽), '장중'(구활자본 573쪽)으로 표현한 것 등이다.

이 밖에 역사적 시대 배경에 대한 서술에서도 표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한중연본의 경우 “이씨 건문 습년이라”(41쪽)로, 연세대본은 “이 씨 건문 초년이라”(42쪽)로 서술한 반면 구활자본에는 이러한 언급이 없다. 이런 점은 구활자본이 역사적 사건에 대한 관심이 줄어 있음과 상통하는 양상이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세 이본은 각기 일정한 거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또 다른 이본이 확인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구활자본은 한중연본보다 연세대본과 좀 더 가까운 것으로 계열화해볼 수 있을 것이다.

III. <형산백옥>의 변모 양상과 그 의미

1. 장면화에 따른 서사 초점의 분산

앞서 구활자본이 드러내는 다른 두 필사 이본과의 상이한 면모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면모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으로 구활자본의 장면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활자본에는 필사본에서 드러나지 않은 구체적인 장면 서술이 적지 않다. 이 가운데 특히 장계선과 연춘난의 혼인 관련 대목에서 이러한 장면화가 두드러진다.

첫째는 황제의 사혼령을 받은 후의 대목이다. 장계선이 연춘난과의 혼인을 주저하자 이미 장계선과 혼인한 임강군주가 아버지 상왕을 통해 황제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에 황제의 사혼령이 내린다. 그 후 귀가한 장계선은 왕초옥과 임강군주 두 부인을 대하여 '녀자의 도리난 가부의 지휘를 드를 짜름이어날 부인 등이 빈계사신흙을 삼가지 아니코' 사사로운 집안일을 천정에 주달했다고 책망하는 것(구활자본 593-594쪽)이 그것이다. 이 과정에서 왕초옥은 연춘난과의 혼인이 '철부성녀의 비고한 정스를 푸는' 일이라 강변한다.

둘째는 둘의 혼례일에 연춘난을 맞으러 간 장계선이 신부를 기다리는

동안 외당에 모인 남성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대화 장면이다(구활자본 594-595쪽). 상왕이 장계선에게 '최장시(催粧詩)'를 지으라고 재촉하자 장계선은 연춘난이 '합중시'를 짓도록 해야 한다며 설왕설래하는 흥성스러운 장면이다.

다음은 혼례를 마친 후 둘의 첫날밤 대면 장면이다(구활자본 596-597쪽). 장계선이 오강에 투신한 연춘난을 구한 인연으로 부부가 된 감회를 밝히고 그 친정 가문의 몰락을 위로하자, 연춘난이 집안의 몰락을 슬퍼하는 한편 혼인을 완성하기까지 도움을 준 여러 사람에게 감사하는 대화가 이어진다.

필사본의 경우 작품 전반에 걸쳐 소설적 형상화의 측면이 약화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⁸⁾ 구활자본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장면들이 확인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필사 이본의 상황을 감안해볼 때 연춘난과 관련한 장면이 이처럼 구체화되어 있는 것은 장계선의 세 부인 중 연춘난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점은 연춘난의 성격을 형상화하는 구체적인 대목에서도 지적할 수 있다.

연춘난은 아버지 연자청이 장계선의 필적을 구입하는 것으로 장계선과 첫 인연을 맺는다. 장계선은 앞으로 있을 자신의 혼인에 필요한 빙물을 마련하고자 '모시늬아편'과 '관저장'을 써 시장에 내놓고 여성의 장신구를 구한다. 도어사였던 연자청이 이를 보고 그 재주를 높이 사지만 직접 장계선을 만나지는 못한 채 딸 춘난의 명주, 옥비녀를 가져와 장계선의 글과 바꾸게 한다. 이러한 사정은 밝혀지지 않은 채 두 사람은 혼인하게 되고, 이후 두 사람이 이미 예전에 필적과 패물을 주고받았던 인연이 있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구활자본: 일일은 학식 연부인 침방에 가서 담화하다가 우연이 무려 왈 거일에 부인 셔안을 보미 나의 슈적이 있는자라 어디서 어뎃나뇨 소저 그 무름을 의괴하며 쯔 왕부인의 옥츠를 보미 자기의 고물이라 한번 탐문코즈 하니 본시 성정이 단일호야 말이 만치 안니흠으로 번거치 아니호앗더니 학스의 말의 썩치고 덕왈 …… (597-598쪽)

두 사람의 옛 인연을 확인하는 대목에서 두 필사본은 왕초옥이 하고

8) 서정민, 「〈석중옥기연록〉 연구」, 『인문학연구』 80(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10).

있던 옥비녀를 본 연춘난이 예전 자기가 지녔던 물건임을 알아보고 바로 의문을 해소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에 비해 구활자본에서는 그 확인과정을 한 단계 늦춤으로써 연춘난의 '단일한 성장'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구활자본 계열이 보이는 변모의 한 방향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즉, 한중연본이 왕초옥을 중심으로 서사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라면 구활자본 계열은 그러한 서사 초점이 연춘난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변모하였거나 적어도 서사 초점이 분산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2. 모본으로서 또 다른 이본의 존재 가능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활자본은 현전 필사본에 비해 확대 서술된 대목이 적지 않다. 그런데 이런 특징과는 별개로, 구활자본은 그 자체적으로 축약에 따른 부자연스러운 대목도 적지 않다. 장계선 이들의 특징을 밝히는 과정에서 구활자본은 “문진 문필은 그 조부 여풍으로 술슈 고묘하고 도학이 고명하나 세스를 부운에 붓쳐 영총이 극진하더라”(610쪽)로 서술하고 있다. 이는 이들의 조부, 즉 장계선의 부친이 친구 성의백 유기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원말명초 혼란한 시기에 출사하기를 거부한 은사였음을 배경으로 한 서술이다. 여기서 세사사를 뜯구름같이 여기고 은둔한 사람에게 ‘영총(榮寵)이 극진하다’고 이어 서술하는 것은 그리 자연스럽지 못하다.⁹⁾

그런가 하면 두 필사 이본의 경우 작품 중심 사건, 즉 장계선과 세 부인의 혼사가 모두 마무리된 말미에 가서야 장계선 부부의 자녀들을 소개하는 정도의 서술이 나오는 것에 비해 구활자본은 연춘난과의 혼인이 한창 진행되는 중에 장계선이 아들을 교무하는 장면이 있고, 더불어 자녀들에 대한 서술이 등장한다.

아자를 다리고 슬상에 교무하다가 야심하되 균주난 즈기 침방으로 도라 가고 학스 는 왕부인과 한가지로 나위에 나오 가니 은정이 더욱이 식롭 더라

츠시 왕부인은 인티 슈삭이오 균주난 싱즈 하니 양지 부풍모습 하야 쇄락청신 하 고 옥안빈 피 반약의 풍치를 겸 하 앗스니 일쌍 귀림이오 양기 선동 이라 학 식의

9) 이 부분에서 두 필사 이본은 ‘유세홀 계피 잇더라’로 연결되어 있다.

즈애와 왕공 부〃의 스량이 각〃 영〃의 소칭이 아니믈 간격이 업서 일쌍보벽으로
아라 술상에 다릴 썸(썸 오기) 업난지라 학스 이에 장즈의 명을 운(문 오기)자이라
흐고 츠즈의 명을 문화라 하니 양즈의 영오특이함이 날로 식롭더라¹⁰⁾ (594쪽)

자녀들에 대한 서술을 본격화한 첫머리 부분에서 왕초옥은 임신 중이고
임강군주는 이미 아들을 낳은 것으로 서술하면서 바로 이어 두 아이를
'일쌍기린(一雙麒麟)'이라거나 '양개선동(兩個仙童)', '일쌍보벽(一雙寶璧)'
으로 함께 이르고 있다. 이는 왕초옥의 출산과 관련한 대목이 생략되면서
생긴 어색함으로 보인다.

다음은 부모 구물 후 영은사에 의탁하게 된 장계선이 '즈장의 놀기를
효측고져 흐야 영통장로와 함께 중국 천하를 유람했음을 서술한 대목이
다.

구활자본: 녕통으로 더브러 텃흐명산을 유람흐야 사천물식을 완상할시 북으로
숭산티약의서 왕옥호구와 무화용문의 즈최를 보고 동으로 틱산티약과 성인의
거처며 서흐로 동남티화위슈와 남으로 촉강의 맑은 경치와 악양승산 디쇼석실이
신선 즈최와 녀산과 적벽의 삼국 전장터며 전당 승경과 촉불지와 연화 텃티를
녁〃히 다 유람흐니 흥금이 할년흐고 의식 소상흐야 글을 지으미 심분 쇠락흐니
도쳐 경기를 이로 기록지 못할너라 (546쪽)

이 대목은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중국 명승지들을 나열하고 있다. 아주
정연하게 서술한 것처럼 보이는 이 구절은 촉강 등을 남쪽 절경지로 설정하
고 있어 적절하지 않은데, 한중연본과 비교할 때 이런 점은 확연히 드러난다.

한중연본: 드디어 녕스로 더브러 천하 명산디계를 다 보아 즈장의 놀기를

10) 자녀의 나이와 관련하여 두 필사 이본에서는 왕초옥의 아들 문각이 장자로서 문화보다
두 살 많아서 나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서술된 반면, 구활자본에서는 임강군주의 아들
문화가 문각보다 두 살이 더 많다. 한중연본의 서사 초점이 왕초옥-문각 중심에 있는
반면, 구활자본은 그와 같은 서사 초점에 일정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지적할
수 있다.

한편 구활자본의 제명 '형산백옥'은 '석중옥'만큼이나 왕초옥에 초점을 둔 것이다. <형
산백옥>이 한중연본과 비교할 때 중심 서사의 초점이 분산되는 등의 변화가 있다는
이 글의 논의와 일견 배치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이 점은 구활자본 <형산백옥>
자체보다는 출간 당시 모본으로 삼았을 또 다른 이본의 존재 가능성을 감안하여 접근할
문제라 생각된다. 더불어 이러한 작품 제명을 감안한다면 <형산백옥>의 모본은 중심서
사의 초점이 완전히 이동했다기보다는 분산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좀 더 무게를 실을
수 있을 듯하다.

효측고져 ㅎ야 북으로 형산티랑이며 왕옥호구와 농문의 우의 자취와 동으로 태산티약과 슈” 스슈의 서인의 거지와 서로 동남티화위슈의 진한의 도읍이며 미산의 썩혀남과 측강의 몹근 것과 낙양승산 디소석실의 신선의 놀던 곳과 남으로 형산절강과 구의충연이며 소상반죽의 이비의 눈물과 먹나창파의 냉군의 자취와 녀산과 황강 적벽의 삼국의 전장이며 동파의 선유호던 곳과 산음슈죽이며 석계빅실과 전당호의 하해며 천축스의 제즈며 회계 년화와 텃티풍월을 녀” 히 다 보니 흥취 활연호고 진에 업서 글을 지으미 심분 쇠락호야 강산의 도오미 잇던 줄 알너라 (29쪽)

들을 비교해보면 구활자본의 서술이 전체적으로 축약된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축약과정에서 남쪽 절승지를 나열하는 대목이 잘못 옮겨진 것을 알 수 있다.

이 대목은 구활자본이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과 더불어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래의 사례들은 그것이 관심 부족의 차원을 넘어 그에 관한 지식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구활자본: 옛말에 일너시되 주옥이 보비가 아니오 어진 산하가 보비라 ㅎ얏스니 이를 싱각호야 그 정고를 썩혀 녀인을 민드려 집과 나라의 보비를 삼고즈 ㅎ얏더니 그디의 후의를 감동호야 갑고즈 ㅎ나 아직 싱남홀 직 아니라 녀즈를 싱호게 ㅎ느니 이 아히 가장 유예호며 시속범” 녀지 아니니 극진이 조심호야 장가의 인연을 밋질지어다 ㅎ고 쏘 널오디 본디 변화호는 옥이니 ㄱ(인용자) 이 옥의 정기가 우호로 이십팔슈을 응호야 녀즈를 탄싱호면 덕형이 풍교의 유익호고 국가의 유공호 보필이 되야 녀 스승이 될지라 (549쪽)

이는 왕초옥이 출생할 때의 태몽 부분이다. 옥의 정기를 빼어내 ‘여인’을 만든다는 둘째 줄의 서술은 아직 아들을 낳을 때가 아니어서 딸을 낳게 한다는, 이어지는 서술을 고려할 때 부자연스럽다.¹¹⁾

그런가하면 ‘변화하는 옥’이라는 서술은 ‘화씨지벽(和氏之璧)’의 변화(卞和)를 잘못 옮긴 것이다. 왕초옥은 태몽에서 비롯하여 지은 그 이름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변화가 만든 전국새(傳國璽)와 짝이 된 백옥의 정기를 받고 태어난 인물이다. 그래서 왕초옥은 변화와 전국새가 그랬던 것처럼

11) 두 필사 이본의 경우 ‘여인’의 자리에 ‘인물’이 나온다.

두 번의 고초를 겪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고, 그것이 두 번의 퇴혼 경험으로 구체화된다. 따라서 위 인용문 ㄴ 부분에는 이러한 연결의 서술이 나오게 되는데 한중연본의 서술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중연본: 임의 변화의 옥과 혼가자라 엇지 일이 방블치 아니리오 두 번 월국하는 형벌을 만나니 비록 그디 인후후기의 익이 경흐나 쏘흔 두 번 옥을 면치 못흐고 세번지 가연을 일우니 (37쪽)

이 대목은 '변화의 옥'을 '변화하는 옥'으로 오독하고, 관련 서술을 생략한 것이 중첩되면서 문맥을 흐린 것이다. 이 밖에도 '이 짜히 당스성 부터 문학을 숭상치 아냐 그 풍속이 오히려 잇느니'의 대목에서 '장사성(張士誠)은 원말에 거병하여 남으로는 소주에서 북으로는 서주에 이르는 지역을 장악했다가 이후 명나라 서달(徐達)에게 제압된 인물로 작중 절강을 가리키는 '이 땅'이라는 구절과 호응한다. 이에 대해 구활자본은 '이곳은 장스가 성흐므로부터 문학을 숭상치 아니흐고 호풍이 오히려 잇시니'로 옳기고 있다.¹²⁾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활자본 〈형산백옥〉은 현전 필사 이본들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장면화된 확대 서술의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런데 이런 점은 일반적으로 구활자본이 필사본의 축약 양상을 드러낸다는 사실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형산백옥〉의 독자적인 특징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구활자본 〈형산백옥〉은 자체 축약으로 인한 부자연스러운 서술 대목들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전 필사본보다 훨씬 장면화 대목이 많은 또 다른 이본을 모본으로 하여 〈형산백옥〉이 등장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12) 이런 점은 〈형산백옥〉의 편집인으로 나와 있는 박건희의 활동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한 단서가 될 듯하다. 선행연구에서 박건희는 구활자본 고소설 간행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인 인물이면서 〈장자방실기〉나 〈서유기〉의 역술자(譯述者)로 내세워졌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한문 지식을 갖춘 인물로 추정된 바 있다(이주영, 『구활자본 고전소설 연구』(월인, 1998), 84-93쪽). 그런데 여기서 박건희가 과연 역술이 가능한 정도의 한문 지식, 더불어 한문학적 소양을 가졌을까 제고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물론 〈형산백옥〉이 보여주는 위 사례가 구활자본 자체의 오류라기보다는 그 저본의 오류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활자본으로 간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오류가 교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역시 구활자본 고소설의 간행 시 박건희의 활동 수준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점이 될 것이다.

IV. 맺음말

이 글은 구활자본 〈형산백옥〉이 필사본 〈석중옥기연록〉의 이본임을 밝혔다. 더불어 현재 전하는 2종의 필사 이본과의 대비를 통해 적어도 구활자본 〈형산백옥〉이 한중연본보다 연세대본과 더 친연한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구활자본 〈형산백옥〉이 필사 이본에서는 볼 수 없는 특정 장면들을 설정하여 그 부분 서술이 확대된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형산백옥〉이 한중연본에 비해 서사의 초점이 이동하였거나 분산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그런 반면 〈형산백옥〉에서는 자체 축약의 흔적들이 발견되었다. 이런 점은 〈형산백옥〉이 현전 필사 이본과 비교할 때 장면화를 통한 확대 서술이라는 특징을 보이지만, 이 점이 일반적으로 구활자본 고소설의 축약 경향과 차별화되는 〈형산백옥〉 자체의 특징이라기보다는 〈형산백옥〉의 모본으로서 현전 필사 이본들과는 차이점이 있는 또 다른 이본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추론하였다.

참 고 문 헌

- 〈석중옥기연록〉,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 〈석동옥〉, 연세대학교 도서관 소장.
- 〈형산백옥〉, 『활자본 고전소설전집 10』, 동국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아세아문화사, 1977.
- 〈옥원재합기연〉 권15,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
- 서정민, 「〈명행정의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1-238쪽.
- _____, 「〈석중옥기연록〉 연구」. 『인문학연구』 80,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101-131쪽.
- 송성욱, 『조선시대 대하소설의 서사문법과 창작의식』. 태학사, 2003, 1-368쪽.
- 신효선, 「〈형산백옥〉 연구」. 한국고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1-69쪽.
- 이은숙, 「활자본 신자구조설에서의 애정소설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86, 1-104쪽.
- 이주영, 『구활자본 고전소설 연구』. 월인, 1998, 1-234쪽.
- 임치균, 『조선조 대장편소설 연구』. 태학사, 1996, 1-353쪽.
- 정길수, 『한국 고전장편소설의 형성 과정』. 들베개, 2005, 1-379쪽.
- 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 태학사, 1998, 1-325쪽.

국 문 요약

이 글은 구활자본 소설 〈형산백옥〉이 필사본 〈석중옥기연록〉의 이본임을 밝혔다. 〈석중옥기연록〉은 현재 2종의 이본이 있는데, 사재동 교수 개인소장본이었던 것으로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된 것과 연세대 도서관 소장본이 그것이다. 이 둘과의 대비를 통해 적어도 구활자본 〈형산백옥〉이 한중연본보다 연세대본과 더 친연한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구활자본 〈형산백옥〉이 현전 필사 이본에서는 볼 수 없는 특정 장면들을 설정하여 그 부분 서술이 확대된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형산백옥〉이 한중연본과 비교할 때 서사의 초점이 이동하였거나 분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가하면 〈형산백옥〉에서는 자체 축약의 흔적들도 발견되었다. 이런 점은 현전 필사 이본과 비교할 때 〈형산백옥〉이 장면화를 통한 확대 서술이라는 특징을 보이지만, 이 점이 일반적으로 구활자본 고소설의 축약 경향과 차별화되는 〈형산백옥〉 자체의 특징이라기보다는 〈형산백옥〉의 모본으로서 현전 필사 이본들과는 차이점을 가지는 또 다른 이본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추론하였다.

투고일 2010. 12. 20.

수정일 2011. 1. 28.

게재 확정일 2011. 2. 7.

주제어(keyword) 형산백옥(*Hyungsanbagok*), 석중옥기연록(*Sukjungokgiyeonrok*), 구활자본 소설(An old printed book), 필사본(manuscript), 장면화(scene)

